4연패 빠진 날 그들은 바다로 갔다

프로배구에 부는 극기훈련 바람

한국전력 세밑 강릉 경포대서 입수
러시앤캐시 번지점프 효과에 자극
단장 포함 전원 풍덩…일부 삭발도
신영철 감독 '필사즉생' 정신력 주문

12월30일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뛰어든 한국전력 3명의 세터와 코치. 왼쪽부터 김정석, 김철수 코치, 김영래, 양준식. 사진제공 | 한국전력배구단

프로배구에도 극기훈련 바람이 불고 있다.

신생팀 러시앤캐시가 11월27일 경기도 청평 리버랜드에서 번지점프를 한 뒤 팀 분위기를 바꿔 연패탈출에 성공하더니 한국전력도 극기훈련에 동참했다. 겨울바다에 뛰어들었다. 12월30일 강릉 경포대에서 전 선수단이 검푸른 동해바다로 향했다.

1989년 프로야구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극기훈련 바람이 떠오르는 이벤트다. 1988시즌 뒤 만년 꼴찌팀 태평양이 오대산 극기훈련을 다녀온 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자 프로야구팀들이 너도나도 극기훈련에 동참했다. 공수부대 훈련(삼성)도 했고, 해병대 훈련캠프를 통해 겨울바다에 뛰어든 팀(롯데)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12월29일 아산에서 우리카드에 0-3으로 패해 4연패에 빠지자 다음날 강릉으로 향했다. '새롭게! 승리를 향해!'라는 주제로 정신력강화 이벤트를 했다. 박노천 단장, 신영철 감독과 선수단 및 사무국이 함께했다.

몇몇 선수는 삭발도 했다. 전원은 동해바다에 뛰어들었다. 팀의 고민거리인 외국인 선수 밀로스도 동참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밀로스가 옷을 주섬주섬 벗더니 뛰어들었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라 처음에는 추워했지만 나중에는 물장구도 치고 재미있어 했다. 경포대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더니 박수를 쳐주며 응원했다." (박병준 부단장) 다행히 날씨는 좋았다. 당시 강릉의 기온은 영상 2도에서 8도였다.

러시앤캐시 김세진 감독과 이민규는 번지점프 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전혀 다른 팀이 됐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찾았고, 요즘 러시앤캐시는 다른 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

한국전력도 이번 겨울바다 입수를 통해 그런 효과를 노린다. 신영철 감독은 필사즉생(必死卽生)을 말했다. "나약한 정신과 패배의식, 안일함은 오늘 바다에서 죽을 것이다. 물에서 나온 우리는 자신감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새로워질 것"이라며 연패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주장 하경민은 "더 이상 팬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머리를 자르고 하나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보답하자"며 동료들을 다독였다.

과연 한국전력의 겨울바다 입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공교롭게도 한국전력이 1월2일 수원에서 상대할 팀은 러시앤캐시다. 번지점프와 겨울바다 입수의 대결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전기수리공에서 LG 구세주로 크리스 메시의 바스켓볼 여정

KB국민카드 2013-2014 프로농구 KBL KOREAN BASKETBALL LEAGUE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LG는 모비스, SK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LG가 꾸준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는 외국인 센터 크리스 메시(38·199cm·사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메시는 경기당 평균 11.3점-8.8리바운드로 LG의 골밑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그는 안정적 기량 외에도 전기수리공에서 농구선수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농구선수의 길, 최고의 선택!

고교 졸업 후 친척을 따라 전기수리공으로 일했던 메시는 길거리농구대회 도중 한 대학교 농구팀에 스카우트됐다. 농구선수로서 성공 보장이 없었기에 3년간 해온 일을 마냥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머니가 '넌 할 수 있다'며 용기를 불어넣어줬다.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고 스스로를 믿었다"고 밝혔다.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숨어있던 재능은 곧바로 두각을 나타냈다. 2년 뒤 메시는 명문 멤피스대에 다시 한 번 스카우트돼 정상급 빅맨으로 활약했다. 비록 NBA(미국프로농구)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유럽에서 꽤나 알려진 선수로 성장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를 거쳐 프랑스 리그에선 최고 센터 중 한명으로 주목받았다. 전성기를 누리던 3~4년 전만 해도 그는 한국에 '비싸서 못 오는 선수'였다. 메시는 "지금 생각하면 농구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체력 문제? 걱정 없다!

유럽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메시는 지난해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전체 13순위)까지 순번이 밀려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30대 후반의 나이 때문이었다. 김진 LG 감독은 "메시가 우리 순번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다른 팀에서 메시의 나이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라이아웃 때부터 그에게는 '체력'이라는 우려가 뒤따랐지만, 보란 듯이 20대 젊은 선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다. 메시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에 대한 우려는 늘 들어왔던 평가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왔으며, 비시즌에도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뛰면서 경기감각을 유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나를 믿어준 LG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KOVO 여자 프로배구 〈12월 31일〉

•경기결과

도로공사	3	19-25 25-23 25-21 22-25 19-17	2	인삼공사

해외축구 〈12월 31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아스널	19	42	13	3	3
2	맨체스터시티	19	41	13	4	2
3	첼시	19	40	12	3	4
4	에버턴	19	37	10	2	7
5	리버풀	19	36	11	5	3
6	맨체스터Utd.	19	34	10	5	4
7	토트넘	19	34	10	5	4
8	뉴캐슬	19	33	10	6	3
9	사우스햄튼	19	27	7	6	6
10	헐시티	19	23	6	8	5
11	스완지시티	19	21	5	8	6
12	스토크시티	19	21	5	8	6
13	애스턴빌라	19	20	5	9	5
14	노리치시티	19	19	5	10	4
15	웨스트브롬위치	19	18	3	7	9
16	카디프시티	19	18	4	9	6
17	크리스탈팰리스	19	16	5	13	1
18	풀럼	19	16	5	13	1
19	웨스트햄	19	15	3	10	6
20	선더랜드	19	14	3	11	5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수아레즈	리버풀	19
②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13
③	레미	뉴캐슬	10
④	스터리지	리버풀	9
④	루니	맨체스터Utd.	9
④	투레	맨체스터시티	9
④	루카쿠	에버턴	9
⑧	네그레도	맨체스터시티	8
⑧	로드리게스	사우스햄튼	8
⑧	램지	아스널	8
⑧	지루	아스널	8
⑧	아자르	첼시	8
⑬	반 페르시	맨체스터Utd.	7
⑭	구프랑	뉴캐슬	6
⑭	웰벡	맨체스터Utd.	6
⑭	램버트	사우스햄튼	6
⑰	카바예	뉴캐슬	5
⑰	콜먼	에버턴	5
⑰	오스카	첼시	5
⑰	솔다도	토트넘	5

•프리메라리가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바르셀로나	17	46	15	1	1
2	AT마드리드	17	46	15	1	1
3	레알마드리드	17	41	13	2	2
4	빌바오	17	33	10	4	3
5	레알소시에다드	17	29	8	4	5
6	비야레알	17	28	8	5	4
7	세비야	17	26	7	5	5
8	헤타페	17	23	7	8	2
9	에스파뇰	17	22	6	7	4
10	말라가	17	20	5	7	5
11	발렌시아	17	20	6	9	2
12	그라나다	17	20	6	9	2
13	레반테	17	20	5	7	5
14	엘체	17	17	4	8	5
15	셀타비고	17	16	4	9	4
16	알메리아	17	16	4	9	4
17	바야돌리드	17	15	3	8	6
18	오사수나	17	15	4	10	3
19	라요바예카노	17	13	4	12	1
20	베티스	17	10	2	11	4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코스타	AT마드리드	19
②	호날두	레알마드리드	18
③	그리에즈망	레알소시에다드	11
③	게라	바야돌리드	11
⑤	페드로	바르셀로나	10
⑥	비야	AT마드리드	8
⑥	벤제마	레알마드리드	8
⑥	벨라	레알소시에다드	8
⑥	메시	바르셀로나	8
⑥	산체스	바르셀로나	8
⑥	조나스	발렌시아	8
⑥	바카	세비야	8
⑬	베일	레알마드리드	7
⑬	파브레가스	바르셀로나	7
⑬	라키티치	세비야	7
⑬	로드리	알메리아	7
⑬	가르시아	에스파뇰	7
⑬	리에라	오사수나	7
⑲	가르시아	AT마드리드	6
⑲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6

•분데스리가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바이에른뮌헨	16	44	14	0	2
2	레버쿠젠	17	37	12	4	1
3	묀헨글라드바흐	17	33	10	4	3
4	도르트문트	17	32	10	5	2
5	볼프스부르크	17	30	9	5	3
6	헤르타베를린	17	28	8	5	4
7	샬케04	17	28	8	5	4
8	아우크스부르크	17	24	7	7	3
9	마인츠05	17	24	7	7	3
10	슈투트가르트	16	19	5	7	4
11	브레멘	17	19	5	8	4
12	호펜하임	17	18	4	7	6
13	하노버96	17	18	5	9	3
14	함부르크	17	16	4	9	4
15	프랑크푸르트	17	15	3	8	6
16	프라이부르크	17	14	3	9	5
17	뉘른베르크	17	11	0	6	11
18	아인트라흐트	17	11	3	12	2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레반도프스키	도르트문트	11
①	라모스	헤르타베를린	11
③	만주키치	바이에른뮌헨	10
④	아우바메양	도르트문트	9
④	키슬링	레버쿠젠	9
④	라파엘	묀헨글라드바흐	9
④	이비세비치	슈투트가르트	9
④	라소가	함부르크	9
⑨	뢰스	도르트문트	8
⑨	뮬러	마인츠05	8
⑨	오카자키	마인츠05	8
⑨	크루제	묀헨글라드바흐	8
⑨	피르미누	호펜하임	8
⑭	샘	레버쿠젠	7
⑭	손흥민	레버쿠젠	7
⑭	뮐러	바이에른뮌헨	7
⑭	올리치	볼프스부르크	7
⑭	반 데 바흐트	함부르크	7

toto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toto Photo

"르브론, 생일 축하해요"

재스민 깁슨이라는 일곱 살 어린이가 31일(한국시간)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덴버전이 열린 펩시센터를 찾아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마이애미)의 29세 생일을 축하하는 문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덴버(미 콜로라도주) | AP뉴시스

NBA 〈12월 31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토론토	13	15	1	인디애나	24	5	1	마이애미	24	7
2	보스턴	13	17	2	디트로이트	14	19	2	애틀랜타	17	14
3	브루클린	10	20	3	시카고	12	17	3	워싱턴	14	14
4	뉴욕	9	21	4	클리블랜드	10	20	4	샬럿	14	18
4	필라델피아	9	21	5	밀워키	6	24	5	올랜도	10	20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오클라호마	25	5	1	LAC	21	12	1	샌안토니오	24	7
2	포틀랜드	24	7	2	피닉스	19	11	2	휴스턴	21	12
3	미네소타	15	16	3	골든스테이트	19	13	3	댈러스	18	13
4	덴버	14	16	4	LAL	13	18	4	뉴올리언즈	14	15
5	유타	10	24	5	새크라멘토	9	20	5	멤피스	13	17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앤서니(뉴욕)	709	26.3	① 윌(워싱턴)	253	9	① 드럼먼드(디트로이트)	409	12.4
② 제임스(마이애미)	764	25.5	② 티그(애틀랜타)	256	8.3	② 부세비치(올랜도)	299	11.5
③ 조지(인디애나)	694	23.9	② 제닝스(디트로이트)	256	8.3	③ 제퍼슨(샬럿)	236	10.3
④ 어빙(클리블랜드)	679	22.6	④ 로우리(토론토)	203	7.3	④ 노아(시카고)	275	9.8
⑤ 아플라로(올랜도)	636	21.9	⑤ 제임스(마이애미)	199	6.6	⑤ 톰슨(클리블랜드)	290	9.7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듀란트(오클라호마)	855	28.5	① 폴(LAC)	360	11.3	① 러브(미네소타)	411	13.7
② 러브(미네소타)	794	26.5	② 커리(골든스테이트)	277	9.6	② 조던(LAC)	443	13.4
③ 알드리지(포틀랜드)	729	23.5	③ 홀리데이(뉴올리언즈)	241	8.3	③ 하워드(휴스턴)	438	13.3
④ 하든(휴스턴)	633	23.4	④ 루비오(미네소타)	255	8.2	④ 커즌스(새크라멘토)	313	11.2
④ 커리(골든스테이트)	679	23.4	⑤ 로슨(덴버)	221	7.9	⑤ 알드리지(포틀랜드)	334	10.8

•경기결과

뉴올리언즈 110-108 포틀랜드	마이애미 97-94 덴버	워싱턴 106-99 디트로이트
피닉스 107-88 LAC	댈러스 100-98 미네소타	유타 83-80 샬럿
시카고 95-91 멤피스		

오늘의 프로농구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1월 1일〉

동부	〈원주종합〉	LG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삼성	〈잠실실내〉	SK
오후2시, SBS스포츠		
KT	〈부산사직〉	전자랜드
오후4시, KBSN스포츠		

오늘의 여자농구

•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1월 1일〉

하나외환	〈부천실내〉	우리은행
오후7시, KBS W		

오늘의 프로배구

• 2013-2014 NH농협 V리그 〈남자부〉 〈1월 1일〉

대한항공	〈인천계양〉	현대캐피탈
오후2시7분, KBS 1TV		

• 2013-2014 NH농협 V리그 〈여자부〉 〈1월 1일〉

흥국생명	〈인천계양〉	기업은행
오후4시7분, SBS스포츠		

NHL 〈12월 31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애틀란틱	승	패	OT	P	순위	메트로폴리탄	승	패	OT	P
1	보스턴	26	11	2	54	1	피츠버그	29	11	1	59
2	탬파베이	23	12	4	50	2	워싱턴	20	15	5	45
3	몬트리올	23	14	3	49	3	필라델피아	19	16	4	42
4	디트로이트	18	14	9	45	4	뉴욕R	19	19	2	40
5	토론토	20	16	5	45	5	뉴저지	16	16	8	40
6	오타와	17	18	7	41	6	콜럼버스	17	18	4	38
7	플로리다	15	20	5	35	7	캐롤라이나	14	16	9	37
8	버펄로	11	24	4	26	8	뉴욕I	12	21	7	31

서부 콘퍼런스

순위	센트럴	승	패	OT	P	순위	퍼시픽	승	패	OT	P
1	시카고	28	7	7	63	1	애너하임	28	8	5	61
2	St.루이스	26	7	5	57	2	새너제이	25	8	6	56
3	콜로라도	23	11	4	50	3	LA	25	11	4	54
4	댈러스	19	12	7	45	4	밴쿠버	23	11	7	53
5	미네소타	20	16	5	45	5	피닉스	19	10	9	47
6	위니펙	18	18	5	41	6	캘거리	14	19	6	34
7	내슈빌	18	18	4	40	7	에드먼턴	13	24	4	30

•경기결과

오타와 3-1 워싱턴	시카고 1-0 LA
내슈빌 6-4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4-3 밴쿠버〈승부타〉